

로스쿨 체제의 명암

올해 사시합격자 707명에 로스쿨 1기 졸업생 중 변호사시험합격자 1451명이 법률시장에 쏟아졌다. 로스쿨 출신은 출발부터 치열한 구직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번듯한 서울의 로펌에는 지방 로스쿨 출신은 거의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연봉은 낮아지고, 변호사시험 후 6개월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연수 기간을 떼우기 위해서 무급으로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즐비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출신학교와 경력, 인맥 등의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은 잘 나간다. 올해 대법원이 로스쿨 졸업생을 상대로 선발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은 비교적 좋은 대접을 받고 있고, 올해 뽑은 검사 100명 중 42명은 로스쿨 출신으로 전도가 양양하게 보장되었다. 서울의 주요 로펌에 들어가 실력을 발휘하는 로스쿨 변호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과연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과 구별되었는가는 한번 따져볼 일이다. 서울 주요 로펌 선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00명 중 지방 로스쿨 출신자는 단 2명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과거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지방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무엇보다 감(感)이 틀리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으로 사법시험에 붙고, 또 사법연수원에서 열나게 공부하면 판검사 임용을 받는다든지 좋은 로펌에 취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누구나 가질 수 있었다. 그가 지방대 출신이라고 하여 미리 기가 죽어, 자신은 아무리 해도 법조인으로 성공할 수

신 평

- 前 서울지방법원 판사
- 前 한국헌법학회 회장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없으리라는 어두운 예측을 하는 따위는 없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포부에 차있었다. 그 소중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로스쿨 졸업생의 출신대학은 물론 가정환경까지 진로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확신에 찬 말이 나오고 있다. 소위 스카이(SKY) 대학의 학부를 거쳐 스카이(SKY)로스쿨을 나온 사람들만 로펌의 시험과 면접과정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채용된다고 한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주요 로펌 취직자 100명 중에서 지방 로스쿨 출신자는 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 일부 로펌에선 로스쿨 변호사의 집안도 채용심사에 고려했다고 한다. 이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로펌은 사기업이고 사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하는데 공무원 채용시처럼 공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느 로펌에 근무하는 중견변호사의 실토가 차라리 솔직하다. “로펌 입장에선 정·관계 고위 인사나 재계·금융계의 유력인사를 부모로 둔 지원자에게 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로클릭이나 검사의 임용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의 판사임용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악폐인 연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제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화려한 스펙을 쌓은 상위 10% 정도의 로스쿨 졸업자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무채색 로스쿨 졸업자들이 냉대 받는 기본원인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아마 로스쿨 졸업생들이 갖는 실무적응능력이 낮다는 것이고, 이는 또 현재의 로스쿨 교육이 로스쿨생들에게 변호사로서 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데서 연유한다.

로스쿨은 형태상 미국식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에서 가르칠 내용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영미식의 법이론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사건의 선례로서의 구속성보다는 개념을 중시하며 그 연역적 해석을 위주로 하는 대륙법학체계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대륙법학체계가 낳은 범조실무의 기본은, 자연계의 모든 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논리적으로 분석, 분류하여 계속적으로 재구성해나간다는 점이다. 가령 돈을 빌려준 일에 관하여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하는 자연적 사실을 생각해보자. 갑은 을에게 돈을 어느 일시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요건사실이다. 을은 이 돈을 다른 일시에 갚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항변사실이다. 갑은 다시 을이 갚은 돈은 달리 빌린 다른 돈의 변제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재항변사실이다. 을은 갑이 주장하는 다른 돈은 이미 훨씬 전에 갚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재재항변사실이다. 이렇게 자연적인 사실을 두고, 법적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 형사문제의 경우에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친다. 이러한 논리적 사유과정에 익숙하기까지는 상당기간에 걸친 연습이 필요하다. 물론 영미법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논리적 분석의 과정이 필요 없다.

사법연수원 교육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이 철저하다. 2년 동안 끊임없이 연마의 과정을 밟아나가면,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하더라도 어느 정도

변호사역할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고, 차츰 더 익숙해져 자기 몫을 훌륭히 소화하는 변호사로 몇 년 안에 커나갈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무교육은 거의 건성으로 넘어간다. 사법연수원이 주로 법조인들로 짜인 최고 정예의 강사진을 구비한 것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로스쿨에서의 실무출신 교수의 숫자는 너무 적고 또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실무교육을 시켜나갈 환경이 그나마 잘 마련되지 않는다.

우리는 위에서 로스쿨 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짚어보았다. 하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구직과정에서 불공정한 기준이 작용할 염려가 아주 크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로스쿨 교육과정이 가지는 치밀하지 못한 실무교육이다.

첫째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로스쿨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사회의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필자처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노력 하나만으로 법관을 했던 사람은 이 시대에서는 법관을 도저히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로스쿨 교육자의 입장에서 자조 섞인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변시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물론 각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변호사로서의 기본능력을 가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에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3년의 짧은 기간 안에 비법학전공자가 다수인 로스쿨에서 방대한 법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엄청난 암기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시 실무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에서, 유럽에서처럼 책을 소지하고 들어가 시험을 치를 수 있

도록 하는 제도가 고려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 로스쿨생들을 대륙법학 체제의 교육이 갖는 악습인 무모한 암기부담에서 해방시키고, 로스쿨 교육에서 논증능력과 법적 사고의 배양이 주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곧 바로 실무교육의 알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는 로스쿨 교육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또 그 진도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점을 잊지 말자. 민주법치국가에서 법조는 가장 중요한 기동일 수밖에 없고, 로스쿨생들은 조만간 대한민국의 법조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그 희망의 여명을 본다면 우리는 로스쿨체제의 위대한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나온 기초적 자료사실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2/20120622201278.html의 기사에 크게 의존하였다.)